

“서울-제주 KTX 연결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남군, 전남 TF 구성…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대응
내달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필요성 공감 형성 토론회

해남군이 서울-제주 고속철도 유치
를 위해 연일 분주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심각해지는 지
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유입
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서울-
제주 고속철도 노선 연결을 적극 건의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태스크포스팀
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
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8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국가 차원
의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확산에도 속
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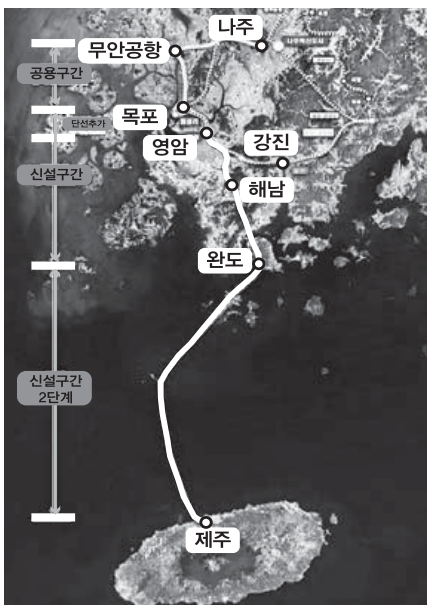
위한 서울-제주 고속철도 토론회’는 해
남군과 완도군, 박지원 국회의원이 공
동 주최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국
회도서관 대강당이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7조원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로 각종 기상이변으로
매년 1천500여건의 결항사태가 발생
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의 대안 노
선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
기됐다.
해남군은 지난 2월 영암군, 완도군과
함께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
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해 11월 열린 ‘서울-제주 고속철도 KTX 건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속철도 연결 예상도. <해남군 제공>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
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노선은 목포에
서 영암, 해남, 완도를 잇는 지상 철도
구간과 완도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이뤄진다. 3개군은
막대한 사업비와 제주도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1단계로 영암과 해남, 완도로 이
어지는 육지 구간을 먼저 연결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남군은 호남고속선
(서울-목포)과 남해선(임성-보성)을
연결해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가
무안공항을 거쳐 계곡면에 위치한 땅골
해남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

중이다.
호남고속선과 남해선이 직접 연결되
는 경우 해남에서도 환승없이 무안국제
공항과 서울까지 다다를 수 있게되며,
남해안권 접근성 향상으로 신규 관광상
품 개발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
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철도망 계
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대
국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에 한번씩 수정 보
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 광주-해남 고
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서 앞으로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큰 변
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해남지역 고속철도 연결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365일 자녀 돌봄’ 나주시, 보육 정책 성과 빛났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2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나주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
상을 높였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공동 주
관한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회에서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사
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은 맞벌
이, 입원, 야근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
에 대비해 365일 자녀 안심 돌봄 서비
스를 제공하는 나주시 보육 정책이다. 민
선 8기 공약인 ‘영유아 시설 지원 확대
를 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해 나주시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야근, 병원 진료·입원과 같은 사정으
로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연중무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주
나.
나주시는 지난해 1호점 킨더브레인

어린이집(빛가람동)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호점 남평어린이집(남평읍), 11월
3호점 공전어린이집(송월동)을 지정·
운영해 주요 권역별 연중무휴 보육 시
스템을 구축했다.
이용 시간은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
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자녀를 돌봐준다. 이용료는

시간당 3천원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
치원 등 보육 시설에 다녀도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임신과 출산, 미취
학 자녀 돌봄, 교육 복지에 이르기까지 시
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힘써온
결과 365일 시간제 보육사업이 2년 연속적
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앞으로
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충환 기자



운병태(가운데) 나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사업의 행정안전부 장관 상수상을 기념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나주시 제공>

영광군,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 추가 지원

농가당 최대 2ha·222만원 지급

영광군은 28일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
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원을 추가 지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전남도와 함께 매년 벼 경
영안정대책비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었
다.

올해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비 12억원
을 더 투입해 총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20억원을 별도 추가 지
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직접 벼를 재배
하는 농업인으로, 쌀 감축을 위해 노력
한 농업인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지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ha당 벼 경영안정자금 7
5만원에 특별경영안정자금 36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111만원이며, 농가당 최
대 2ha까지 2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 한해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 농업을 지켜준
군민들 모두 고생했다”며 “이번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쌀 값 하락과 병
충해 발생으로 힘들었던 벼 재배농가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완도군,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3년 연속 우수 시·군…벽화 거리 등 마을 특색 반영 사업 호평

완도군이 “2024년 청정 전남 으뜸 마
을 만들기” 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우
수 시·군으로 선정된 가운데 올해는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는 주민 주도로 마을을
가꾸며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
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주민 참여도, 추진단 운영
실적, 홍보 및 수범 사례 등을 평가해

우수 으뜸 마을 7개소를 선정했다.
완도군에서는 완도를 소가용마을,
노화를 구목·마삭마을, 신지면 동고마
을, 약산면 관중마을 등 5개 마을이 선
정됐다. 소가용마을은 휴경지를 공동
텃밭으로 활용해 작물 판매금을 취약
계층에 기부했으며, 구목마을은 태양
광 조명 설치와 경관 정비로 야간 산책
로를 조성했다.
마삭마을은 경관 개선을 위한 꽃밭

을 조성했으며, ‘마삭도 일주일 살아보
기’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동고마을은 벽화 거리를 조성했으
며, 관중마을은 고추와 흑염소 이미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우편함을 제작해
마을 홍보와 경관 개선 효과를 거뒀다.
완도군은 마을 특색을 반영한 사업
과 공모 사업 연계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산면 진산마을 폐교를 활
용한 기록 전시회 등에서도 호평을 얻
었다.
전종실 행정지원과장은 “내년에도
타 시군과 차별화된 과제를 추진해 우
수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군, 벼멸구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내달 중순 1천492호에 9억9천만원 지원

강진군은 28일 “벼 재배농가 중 지난
7-9월 이상 고온에 따른 벼멸구로 피해
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 9억9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진군 벼멸구 피해 면적은 1천
31ha로 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4%였
다. 특히 9월 집중호우와 피해가 중첩
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올해 유독 벼멸구 피해가 극심한 이
유는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벼멸구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와 많이 고사됐다.
특히 고온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2-3세
대를 거치며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피해가 더 컸다.
강진군은 올해 벼멸구에 따른 농작
물 피해가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됨
에 따라 지난 10월8일부터 21일까지 읍·
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접수 및 피해조
사를 실시했다. 강진군은 군비 2억4천
만원을 포함해 3억7천만원을 제3회 추

경에 요구했으며, 벼멸구 피해농가 1천
492호에 재난지원금 9억9천만원을 오
는 12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초부터 잦
은 이상기후와 더불어 수확철을 앞두고
벼멸구가 발생해 농가 피해가 컸다”
며 “벼멸구 피해가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복구비를 지원받아 조금
이나마 농가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병충해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구입비 6억8천만원을 조기 지원했
다. 전 읍면 현수막, 언론홍보, 문자, 카
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 도초도서 ‘숨결의 지구’ 공개

올라퍼 엘리야슨작…자연·생태 조화 예술섬 탈바꿈

신안군은 28일 “지난 25일부터 도초
도에 설치된 덴마크 출신 올라퍼 엘리
아슨(Olafur Eliasson)의 작품 ‘숨결
의 지구’를 대중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수국축제와 팽나무 숲길로 유명한
도초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
는 생태관광의 성지로 접근이 어려운 섬
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20만명의 관광
객이 방문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도초도가 생태관광

지로서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세계적 작가인 올라퍼 엘리야슨의
작품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생태관광지
였지만, 작품 공개 이후 자연의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예술섬으로 변신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적인 작가
인 영국 출신의 조각가 안토니 곰리 작
품을 인근 비금도에 설치할 예정”이라
며 “작품 설치와 완료되면 예술예호가
를 비롯한 연간 50만여명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예술섬으로 변신을 기대한
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목포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서 ‘장려상’

지역경제·돌봄 복지 분야서 평균 대비 우수 평가 받아

목포시는 28일 “제14회 지방자치
단체 생산성대상에서 생산성 지수
측정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
혔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행정안
전부 주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
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하
고 있으며,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
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적
으로 측정하는 평가다.
평가는 생산성지수 측정 부문과 우
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생
산성지수 측정 부문에는 전국 226개 기
초지자체 중 135개 지자체가 응모해 16
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측정 지표는 2개 영역 6개 분야로
지자체 경쟁력 영역에서 인구 관리,
지역 경제, 행정·재정 역량을 그리
고 삶의 질 영역에서 돌봄·복지, 안
전·건강, 교육·문화 수준을 측정해

지표별 등급을 판정하고 배점을 종
합함으로써 종합 생산성 지수를 산
출한다.
목포시는 지자체 경쟁력 영역인
‘지역경제’ 분야와 삶의 질 영역인
‘돌봄·복지’분야에서 측정 대상 지
자체(시) 평균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24개 하위지표 중 ▲합계출산
증가율 ▲청년고용 증가율 ▲사회복지
시설 수 ▲어린이집·어린이집 유아 수
▲주관적 건강수준인지를 ▲의료기관
병상 수 등 11개 지표에서 S와 A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이
번 수상을 통해 결실을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이 더욱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무안군 융복합센터 운영 전
농가·업체 맞춤 컨설팅 교육

무안군은 28일 “농산물의 고부가가
치를 높이기 위해 조성한 무안군 융복
합센터의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역 농
가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설비
이용 및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진행했
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3주간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
고 유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공설
비 사용법과 사업 등록 및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들은 실습과 가공설비를
직접 체험해 장비 사용 기술을 습득하
고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무안군 융복합센터는 고무마
와 단호박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융
복합산업화, 다양한 민간자생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지역발전 기
반구축, 일자리 창출 등을 끌어내는 농
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됐으며, 내년 초에 정식 운영할 예정이
다. /무안=김상호 기자